귀신들린 자 하나님 들린 자

(마태복음 8:28~34)

28.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29.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30.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31.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 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32.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33.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34.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귀신 들린자 하나님 들린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귀신 들린자 하나님 들린자'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귀신이라는 존재는 바알세불 등으로 불렸던 사탄의 대리자이자 앞잡이입니다. 보통 더러운 귀신으로 지칭되는데 그렇다면 깨끗한 귀신도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더럽다는 것은 귀신의 공통적 속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모든 귀신의 공통적 속성은 더러움이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는 이러한 언급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귀신을 쫓으신 사건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살인적인 풍랑이 불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 땅인 가다라 지방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방 땅이기에 유대 땅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돼지를 치는 모습입니다. 유대사회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져서 사육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호수로 달려가 몰살당하는 장면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언급되기에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접할 때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사건에만 집중하여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방 땅 가다라 지방이고 특별히 공동묘지입니다. 마태는 이 상황을 예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있는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마태의 관점에서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은 이방 땅인 가다라 지방의 공동묘지에서 살아가는 귀신들린 사람과 같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 관계 바깥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묘사되는 귀신들린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의 명령과 귀신들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났을 때에 잠잠하라 명령하셨고 실제로 풍랑까지도 예수님께 순종하여 잠잠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권을 전적으로 위임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권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나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권과 귀신들림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살펴봄을 통해 귀신들림의 기준을 알 수 있고, 귀신들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발생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귀신들림은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귀신들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 뜻하고 결단하고 추진하며 감정을 느끼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실제로는 귀신들린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나온 귀신들린 사람처럼 날뛰지도 않고 정상인으로 살아가는데 대체 왜 귀신들렸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림의 증거가 무엇인지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려 광폭하게 굴던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으시자 귀신들은 돼지 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 일을 지켜보던 돼지 치던 자들이 시내에 들어가 소문을 퍼트립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벌어진 상황을 보게 되었고 이들은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귀신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들리지도 않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상황을 재해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공동묘지의 상황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해괴한 짓을 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시기를 요구합니다. 돼지 떼가 몰살당해서 손해를 보았으면 물어달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다만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들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예수님을 탓하고자 했으면 예수님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유대사회에는 변상의 의무가 존재했음은 물론이거니와 제사 중에도 남에게 해를 입혔을 때에 배상하도록 하는 속건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기만을 요청했고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그러한 요구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귀신 친화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에 들려있던 두 사람을 무섭게 여기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린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귀신이 더 친근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이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있었다면 귀신이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거리감이었을 것입니다.

이전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병환자 같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세상에 대한 관계가 끊어지고 예수님을 첫 번째 관계의 대상으로 만날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은 연합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앞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스스로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배를 올라탔듯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올라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칠 때에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신에게 있어서는 기존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고 안주할 곳이 없어지는 일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귀신들려 있었기에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귀신들린 상태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나병환자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으며, 제자들이 배를 타듯이 마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2장 14~15절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일은 인간으로써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인지상정의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귀신들리고 사탄에게 사로잡혔기에 죽음을 무서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유도 귀신들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명품을 사고 싶고 명품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생각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렸기 때문에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같이 원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정상적인 일들이 실은 전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자신이 귀신들린 사실을 모를까요?
이른바 귀신의 위장작전 때문입니다. 이 위장작전의 진실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귀신들림이 강력했던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언급이 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들린 두 사람의 행동은 너무나 기괴하고 무섭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하였습니다. 귀신들의 왕 사탄이 군대 귀신을 시켜서 이러한 일을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군대는 곧 귀신의 진영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귀신은 인간의 인격 속에 숨어들어와 있는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기에 발각되는 것을 숨김으로써 귀신들의 진영을 유지하고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귀신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정상적인 일임을 인식시키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위장작전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두 사람을 정해 군대 귀신이 들어가게 하여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하게 하고 기괴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몸을 상하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등의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서 귀신들림의 기준으로 삼게 합니다.
28절을 다시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들의 위장작전입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여기게 한 결과 모든 사람들은 귀신 들렸음에도 귀신 들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정상적이라 여기게 합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서 소원하고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정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은 모두 귀신들린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린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내용이 이미 본 5~7장까지 언급되어진 내용입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

이 하나님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강요가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실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병환자와 같이 만나고 백부장과 같이 따르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탔던 것처럼 마음으로 예수님을 올라타게 되면 산상수훈과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들린 자들의 소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게 됩니다. 나병환자처럼 기존의 모든 관계를 끊고 예수님을 만나고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따라가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예수님 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다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연합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유에서 각종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외에는 다 귀신들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들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증거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육체로 접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삶에서 찾아오는 대부분의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피조물로써의 인간은 독자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만 본래 계획된 인간의 모습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아니라면 결혼해서 몇 십 년이 지났어도 배우자의 본래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도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녀의 모습을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귀신에 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귀신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권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동네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에서 귀신을 쫓지 않으신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스스로가 귀신들릴 조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 의해 만들어진 인격적인 과정의 결과 때문에 귀신은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풍랑 만난 사건으로 돌아가 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마음을 보낼 수 있는 두 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깊이 주무시는 예수님과 죽일 듯이 달려드는 풍랑입니다. 제자들이 평안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안에 마음을 보낼 수 있었다면 동일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에 풍랑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랑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권이 작동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살펴

보았듯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명령권 사정거리 바깥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정거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동안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권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인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해 명령권자가 되고자 하는 동안에는 마음은 예수님께 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 대해 귀신들이 지배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들의 활동기간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심판 뒤에 불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때까지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은 2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항변을 합니다. 마치 전세계약 기간이 안 끝났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고 항변하는 것 같습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 명령권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을 귀신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5장 8절에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신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기를 요구하고 예수님은 귀신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귀신을 쫓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허락을 하신 이유는 귀신들이 최후에 있을 심판 전까지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삶을 명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귀신의 지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이 일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귀신이 지배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소원은 곧 스스로의 삶에 대한 명령입니다. 본래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존재하고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으라 하실 때에 그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들만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꿈과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명령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3년 뒤에는 십억을 벌었으면 좋겠다, 자녀가 이렇게 저렇게 형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귀신들린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해야 할 대상들에게 스스로 명령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들린 자가 아닌 하나님 들린 자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어졌습니다. 하늘의 평안이 있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오늘

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 모든 관계에 대해 죽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에 또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모셔서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던 주님의 평안을 이 땅에서 표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귀신들린 자의 모습을 말끔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들린 자로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오직 한 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귀신들림의 상황이 더는 재현되지 않고 하나님 들린 자로써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